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각급학교 졸업을 감사하며 졸업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졸업식(꾸러기 30회, 어린이 22회, 멋쟁이 20회)이 오늘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주보모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가정 예배와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43 - 6 호

2026년 2월 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멋쟁이 졸업생 부모님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오강자 권사님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졸업생 근황 : 멋쟁이학교에서 배운 사랑과 성장

0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멋쟁이학교 7기 졸업생 채지환입니다. 작년 말, 참 오랜만에 고향 같은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2012년 졸업 후 어느덧 13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정을 거닐며 문득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 배움은 오늘날의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짝막한 생각을 후배들에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멋쟁이학교 재학생이 아닌 분들은 “졸업생이 이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웠다고 회고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01. 수용과 관계의 장: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멋쟁이학교는 제게 ‘사랑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안적인 교육의 가치를 좇고 물심양면으로 희생해주신 선생님들, 이 가치에 동의하며 지지해주신 학부모님들 및 사랑방교회 수많은 어른들 덕분이었습니다.

재학생들께서 그 수용의 경험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받고 있다는 안전함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타인에게도 흘러보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사랑을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관계의 연습’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졸업 이후 사회 어디에서라도 누군가에게 조금 더 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정함이 오늘 날에 정말 희귀한 지능이라는 밈(meme)이 있습니다. 경쟁에 익숙한 사회에서 다정함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졸업 이후에도 경쟁력이 됨을 경험하는 요즘, 재학생들께 멋쟁이에서의 재학기간이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하는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2. 성장의 장: ‘도망치는 노력’이 아닌 ‘나아가는 기쁨’으로

심리학에는 행동을 이끄는 주요한 방식으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이야기 합니다. 정적 강화는 칭찬이나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고, 부적 강화는 잔소리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상태를 피하려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업으로 예를 들면 성취감이 들어서 공부하면 정적강화,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부적강화이겠죠.

흥미로운 것은 부적 강화를 통한 행동은 피하고자 했던 부정적 자극이나 상태를 벗어나는 순간 중단되기 십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들만큼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공부하도록 이끕니다. 소위 ‘부적 강화’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공포와 회피로 만들어낸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입시를 끝마치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방황하는 친구들을 종종 목도하곤 했습니다.

멋쟁이학교는 저에게 재촉하고 높은 수준을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곳이었습니다. 재학생들께서도 정적 강화, 즉 ‘내적 동기’에 의한 성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를 마주하는 즐거움이 나를 움직이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단순 학업에서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동, 노래, 요리 등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탐구와 성장경험이 쌓인다면, 이는 졸업 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99. 마치며

졸업 후 사회에서의 생활은 때로 거칠고 삭막합니다. 하지만 멋쟁이학교에서 배운 ‘타인을 향한 다정함’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는 기쁨’은 이 사회에서의 생활을 평화롭고 의연하게 지나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학생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배움의 영역은 그보다도 훨씬 넓고 깊을 것이나, 오늘은 그중에서 저에게 소중한 두 가지 배움을 나누며 글을 줄입니다.

졸업생 채지환 (2012년 멋쟁이학교 졸업)

한주간의 말씀

“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51, 486 / 357

기도 :

성경 : 사무엘하 18장

제목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다.

1. 내용: 다윗이 승리했으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What)

<문단구분>

1~6절 <재편 된 다윗 부대의 출정>

7~18절 <다윗 부대의 승리와 압살롬의 죽음>

19~33절 <승전보와 다윗의 애통>

2. 의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Why)

1)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대를 재조직하였다.

2) 다윗 부대가 열세 속에서 승리하였다.

3) 죄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3. 적용: 자기 자랑의 수렁을 조심하자. (How)

1) 리더십의 권위는 팔로워들이 세워줍니다.

2)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자.(다윗)

3) 자기 자랑은 교만의 첫 걸음임을 알고 주의하자.(압살롬)

개학을 했다. 방학 중 작업했던 앨범을 학생회와 확인하고 나니 밤 11시였다. 각자 방에 들어가기 위해 복도로 나섰는데, 정수기 밑이 심상치 않았다. 물이 조금씩 새는 수준이 아니라 웅덩이처럼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어진선생님의 빠른 판단으로 5방 남학생들을 불러냈다. 모두 동원되어 걸레로 물을 닦고, 통을 가져와서 짜고, 다시 닦고, 짜고, 통을 비우고... 학생회도 이리저리 뛰며 걸레와 밀대를 공수해오고... 복도는 보일러가 돌지 않아서 안 그래도 추운데, 다들 맨발로 애를 썼다. 근데 솔직히 웃음이 났다. 고생하는 걸 즐기는 타입이라서가 아니라, 그 밤에 갑자기 재난처럼 일어난 일을 군말 없이 해결하는 애들이 기특하고 대견해서 웃음이 났다. 그리고 실제로 애들도 즐거워했다. 아마 고생 뒤에 따르는 뿌듯함과 평생 기억할 추억의 특별한 맛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월요일부터 수업도 하고 방학 숙제 확인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했다. 목요일엔 영화관을 빌려 다함께 <신의 악단>을 관람했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90년대 북한의 '가짜 찬양 부흥회' 사건을 각색한 내용이었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우리에게 '진짜'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다.

금요일, 졸업을 앞둔 6학년들과 사은회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 졸업하는 다섯 명의 아이들은 내게 조금 더 각별하다. 2020년, 내가 멋쟁이학교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함께 시작한 '동기'들이자, 내 생애 첫 담임의 자리를 맡겨준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미숙함을 기억한다. 또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함께 지나며 어려움을, 어찌면 아픔을 공유했고, 먼 유럽 땅에서 한 달간 동고동락하며 평생 꺼내 먹을 추억을 함께 만들었다. 나 또한 이들과 함께 자랐음을 느낀다. 이제 학교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아이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낮선 세상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때로는 두렵겠지만, 우리가 함께 쌓은 시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소망한다. 더 나아가 '멋쟁이'답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한다.

젊은이사랑방 장성아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이사야서 40 : 28-31
26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3 : 16-17
25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고린도전서 2 : 1-16
560
“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3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288(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서병욱 임진숙 / 봉헌위원 : 진정행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배

공동기도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사도 바울은 철학과 수사학이 유행하던 고린도에서 화려한 언변이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영 세상은 끊임없이 힘과 성공을 숭배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부추깁니다. 이것이 곧 '세상의 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자신의 은사와 공로를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영광과 지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랑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미련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뒤로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영욱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오랜만에 모인 꾸러기들의 목소리는 우렁차게 자연예배당을 채웁니다. 뭘 때 그냥 뛰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갑니다. 방학동안 모아둔 에너지를 학교에서 폭발합니다. 역시 꾸러기는 꾸러기학교에서 같이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한 친구가 찾아왔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루가가 엄마와 함께 찾아와 월요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루가도 낮을 가리고, 꾸러기도 말이 안 통해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꾸러기 일상을 똑같이 같이 지냈습니다.

추운 겨울 밖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고구마를 구워먹었습니다. 불을 때기 위해 나무도 가져오고, 나뭇잎도 줍어와 넣어봅니다. 직접 호일에 찐 고구마도 넣고, 맛있게 익은 고구마에 감동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이의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꾸러기 모두가 정성껏 준비한 특별 카드를 주고 인사를 했습니다. 유이 몰래 카드를 준비했는데 유이도 모두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모두 하하호호 웃으며 잘 인사했습니다.

이번에 두 명이 졸업을 합니다. 3년을 같이 지낸 친구들이 한 주간 열심히 졸업식 준비를 했습니다. 새 출발하는 친구들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졸업을 축하하고 사랑해~♡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은 짧은 등교가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전교생이 만나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먼저 반이 모여 앉아 방학숙제를 펼쳐 놓고 얼마만큼 했는지 열심과 수행을 평가합니다.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누가 보아도 멋지게 달성한 친구를

뽑아 방학과제 상을 줍니다. 이번에도 4명의 친구들이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카페이용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삶에서는 지켜내기 힘든 출석상이 있었습니다. 여행이나 질병, 가족행사...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널려 있는 가운데서도 지각, 조퇴도 없이 1년을 성실히 다닌 친구에게 개근상을 수여했습니다. 몇 명일까요? 단 한 명이 받게 되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해주셨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사은회 소식입니다. 장소에 들어서면서 부터 꽃을 안겨주고 딸랑딸랑 종을 흔들고 박수로 교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졸업생들과 부모님들과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던지 눈가에 웃음 주름이 지금도 퍼지질 않네요.. 영동한 퀴즈와 재롱과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아쉬움과 감사함을, 교사들은 뿌듯함과 감사함을 서로 전했습니다. 6년을 잘 달려 왔습니다. 서로가 잘했다고 칭찬을 마땅히 해도 될 만큼.. 보내고 또 맞이하고 계절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비바람을 이겨낸 걸 서로가 알고 주님이 아실 것이기에 보내는 마음 뒤로 하고 학교는 힘을 냅니다. 파이팅!!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봄학기 동안 교육관의 공사가 이어지면서 사랑방공동체의 여러 장소들을 빌려서 수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불평 없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고, 또 하루 종일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 패턴에 적응해나가면서 집이 몹시도 그리웠겠지만, 모두들 잘 견디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젠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6학년과 함께 말입니다. 다들 최대한 6학년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려 노력했고, 졸업예비생들도 좋은 마무리를 위해 애썼습니다. 오늘 있는 졸업식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 세상에 나간다니,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사은회를 마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소니예요!

일단 저는 선생님 반이어서 무지 무지 행복했어요! 저희가 만난 지 비록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그 1년 반 동안 추억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선생님 속을 썩였을 때도 있었지만 기분 좋게 해드린 적이 더 많은 훌륭한 제자겠종? 하핫!!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사랑해요!!♡♡ / 2026년 2월 7일

좀 전에 이번 졸업생들이 마련한 사은회를 마치고 돌아왔다. 5명의 졸업생들이 각자 인연이 깊은 교사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는 순서가 있었는데 우리 반 소니가 내게 준 편지가 귀여워서 옮겨 써보았다.

이번에 어린이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1학년이던 2020년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해였다. 온라인 수업을 받다가 5월부터 서서히 학교로 등교했고 마스크 착용과 체온 재기, 1인용 가림막 사용이 의무였던 때다. 그 해에 쪽 여행을 못 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10월에 딱 한 번 조심스럽게 1박 2일 학년별 여행을 갔었다. 가서 참 재밌게 잘 지냈고 잘 시간이 돼서는 예쁜 방에서 각자 원하는 인형을 안고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진용이를 시작으로 하은이, 윤아 모두 엄청 울어서 달래고 재우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1학년 때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 가서 밤에 잘 울던 친구들이 자라서 이번에 졸업하는데... 이제 해외에서 10박을 해도 시간이 빠르다고 하고 공항에서 노숙을 해도 잘 잤다고 하는 아이들이 되었다.

4학년 10월에 편입해서 전학 오자마자 도보여행을 가야 했던 다온이, 5학년 2학기 9월에 편입해서 소속사 활동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느라 늘 바빴던 소니도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 키가 큰 만큼 마음도 넓어지고 태도에는 여유가 생겼다.

오늘 사은회 자리에서 5명 친구들 모두 행복했다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어린이학교 생활을 정리했다. 어린이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학부모님들과 교사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성장했다. 신뢰와 사랑의 꽃을 피운 좋은 시간이었다. 공동체에서 교육선교의 사명을 품고 함께 애쓰는 보람이 있다.

그루터기 사랑방 전선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336장, 322장

성 경 : 이사야서 44장 21~29절

말 씬 :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러시아 한국인 선교사를 위해>

3일 하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여성 선교사 박모씨가 지난달 말 러시아 당국에 체포 구금되고 종교시설을 해산했다. 아동대상 종교캠프, 성경필사 등, 미국 계열 종교 단체 소속을 부각하여 보도하고 한국인 선교사들의 러시아 불법 입국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개척자들을 위해>

The Frontiers(사단법인 개척자들)는 1993년 세계를 위한 기도모임으로 시작한 국제적, 독립적인 기독교 단체로 분쟁, 재난, 기아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 버려진 이들에게 평화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를 가르치며 UN, NGO, 선교사 등과 협력하여 무너진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미래의 희망과 화해를 위한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1) 봄학기 중인 꾸러기학교와 멋쟁이학교를 위해
- 2) 사랑방공동체 졸업식을 위해
- 3) 회복 중이신 환우들을 위해
- 4) 철거 증축 작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날씨가 따뜻해지나 했는데 다시 강추위가 찾아와서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됩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공동체 남자분들은 교육관 2층 철거작업을 계속하여 드디어 철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철거된 자재들까지 정리하는 마지막 작업은 정말 고된 일이였습니다.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일들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